









# 동네방네 아지트 탐방 4

인천의 문화 아지트를  
찾아 떠나는 여행



# 동네방네 아지트 탐방 4

인천의 문화 아지트를  
찾아 떠나는 여행





## 들어가는 말

2020년은 모두에게 정말 힘든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동네방네 아지트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면서 프로그램 일정을 여러 차례 변경해야 했고,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에 따라 공간 운영을 중단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아지트 프로그램을 끝까지 운영해주신 운영단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올해 동네방네 아지트 지원을 통해, 7개의 군·구에서 11개의 새로운 아지트를 발굴했습니다. 연습실, 스튜디오, 서점, 무인카페, 동네 문화공간 등 민간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공간을 소개하게 되어 뿌듯합니다. 동네방네 아지트 프로그램을 통해, 집 근처 가까운 곳에서 다양한 생활문화 프로그램을 접할 기회가 점점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하고 친숙한 우리 동네 아지트가 더욱 많이 소개되기를 바랍니다.

인천문화재단 시민문화부

윤지원

## 차례

### 강화군·서구 동네방네아지트

섬들 사이에 카페가 있다 **공간 섬알** \_10

느려도 괜찮아 거북 기타 **거북이밥(시인의 사회)** \_16

서로에게 베푸는 마음이 만들어 가는 곳 **우리 동네 사랑방 서구민중의 집** \_22

### 계양구·미추홀구·부평구 동네방네아지트

해보면 알게 되는 출구 없는 즐거움! **maker's 놀이터 해볼** \_30

청년 예술가의 작은 작업실 **모모하시니의 만물작업** \_36

장애인과 만난 대중 연예인 **에이블스튜디오** \_42

지금 이 곳은 지금에 맞게 **복합문화공간 지금** \_48

## 남동구·연수구 동네방네아지트

일상의 작은 기적 - 독서와 독후드로잉 **동네 책방 시방** \_56

‘술, 까, 톡- 슬기로운 직장생활’의 정윤희 대표 **꿈꾸는 음악 스튜디오** \_62

시민들과 함께 즐기는 연극 **광대무변** \_68

일주일에 한 번 마법의 문이 열리는 곳 **연수구‘내일 또 와’** \_ 74

2017-2020 동네방네 아지트 한눈에 보기 \_98

2017-2020 동네방네 아지트 목록 \_99



아지트마다 연결된 QR코드를 통해  
짧은 소개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 강화군, 서구 동네방네 아지트



# 1 | 섬들 사이에 카페가 있다 공간 섬알



누구나 섬에서 바다를 바라보며 커피 한잔의 휴식을 원한다. 하물며 그곳이 어느 이름 모를 무인 카페라면 어떨까?

어느 시인은 '사람들 사이에 섬이 있다. 그 섬에 가고 싶다.'라고 읊었는데 그 흥내를 내어 본다.

‘섬들 사이에 카페가 있다. 그 카페에 가고 싶다.’

아차도의 무인 카페 ‘공간 섬알’은 바로 그런 곳이었다.

아차도는 강화도 외포리에서 뱃길로 한 시간 반을 달려가는 곳. 주문도, 아차도, 불음도, 말도의 네 개 섬이 나란히 줄 맞춰 서 있는 서도면의 사형제 섬. 그중 크기가 가장 작은 막내 섬 아차도. 하루에 방문객이라고는 너덧 명도 안 되는 섬이다.

이 섬에 무인 카페가 들어섰다.

시각예술작가 박유미, 홍유경 씨가 <섬의 노래>라는 공공예술프로젝트를 진행하던 중 아차도를 방문했는데, 그만 이 섬에 첫눈에 반해 버렸단다. 2년간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섬 주민들과 신뢰를 쌓아갔던 중, 아차도 교회의 김부린 목사님이 무인카페를 만들어보면 어떻겠냐고 제안했다. 목사님은 주민들을 위해 무인가게도 이미 운영 중이었다.(아쉽게도 이 아차도의 명물 무인가게는 지난 태풍에 사라졌다.) 무인카페는 생계를 위해 노동만 하는 주민들에게 잠시라도 차를 마시며 휴식을 취할 공간을 제공하자는 취지였다. 공감한 세 사람은 방법을 모색하다가 인천문화재단의 도움을 받아 2014년 드디어 무인카페를 열었다.

해를 거듭하면서 카페는 단순한 휴식 장소에 그치지 않고 주민들의 문화예술 공간으로 발전했다. 2015년 <아차빛>이라는 전시회를 연 것이 출발이었다. 주민들은 사진을 찍고 전시에 직접 참여했다. 이후 박

유미, 홍유경 작가는 주민들과 다양한 예술 활동을 함께하며 <공간 섬알>을 무인카페 겸 복합예술공간으로 키워냈다.

“주민들이 처음으로 그림을 그리던 모습이 떠올라요. 테이블 위에 드로잉북들, 이젤에는 화판들이 이 공간에 꽉 찼죠. 모두 창작에 집중하느라 정적만이 감돌던 그 순간이 생각납니다.”

홍유경 씨는 처음 주민들과 ‘공간 섬알’에서 예술 활동을 공유하던 때를 회상했다.

노동에 지쳐 여유가 없는 주민들에게 예술 활동은 처음에는 생소하고 사치스러운 것이었다. 여기서 그런 활동을 한다는 게 불가능한 것처럼 느껴졌다. 그러나 두 작가의 노력으로 주민들이 점점 ‘공간 섬알’ 가까이 다가오게 되었다. 이제 주민들은 이 무인카페에서 하루에 겪은 에피소드나 생각과 감정들을 자신들의 그림으로 나타내고, 또 서로의 그림을 보면서 소감도 나누는 하루를 보낸다. 그러다 보니 전에 없던 마을 사람들끼리의 끈끈한 정이 생겼고, 서로 이해하고 관용하는 태도가







형성되었다.

“이런 소소한 일상의 변화가 공동체 안에 스며들 수 있다는 점이 놀랍습니다.”

예술가 주인은 이렇게 무인카페 활동하면서 느낀 보람을 이야기했다.

‘섬알’이라는 이름은 김부린 목사님이 지었는데, ‘섬이 품은 알처럼 문화를 잉태하고 있는 공간’이라는 뜻이란다. 아차도 선착장을 내려 오르막을 따라 난 길을 걷다 보면 문득 마을 전경이 나타난다. 산언덕이 빙 둘러싼 아래에 스물한 가구가 바다를 바라보며 웅기종기 동그랗게 모여 있다. 마치 섬이 알을 품은 모습이다.

또 하나 아차도의 특별한 광경이 있다. 바다를 향해 줄지어 서서 펼쳐어는 태극기 행렬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자세히 보니 집마다 태극기가 게양되어 있다. ‘공간 섬알’은 지난 10월 24~25일 이 태극기를 주제로 전시회를 열었다. <이매진: 하늘은 하늘대로 바다는 바다대로>라는 제목으로 북한과 인접한 민통선 마을 아차도에서 수십 개의 태극기가 휘날리는 풍경을 담아냈다. 평화에 관해 고찰해보자는 의도에서 개최한 전시회였다. 아차도의 태극기 마을은 2016년 형성됐는데, 공간 내부에는 홍유경 작가가 2012~13년 태극기가 없었던 아차도 풍경과



지역 곳곳을 미시적인 시각으로 해석한 사진 전시를 열었고, 외벽에는 박유미 작가가 주민 세 분과 함께 <평화>라는 키워드로 작업했다. 태극기를 애국심이라는 상징보다 넓은 의미에서 국가 간의 경계를 넘어선 인류의 평화로 바라보았다. 주민들과 자연을 배경으로 카페의 외벽에 자유롭게 그림을 그리는 행위 자체가 평화를 닦은 것이었다.

그런데 ‘공간 섬알’의 구조에 의문이 생겼다. 공간은 바깥에 간판도 없고, 출입문도 길목 쪽이 아닌 반대편에 두었다. 무슨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 것일까?

사람들이 다니는 길목 쪽으로는 출입문은커녕 창문도 내지 않았다. 온통 벽뿐이다. 반면에 반대쪽은 출입문과 넓은 창문으로 개방되어 있다. 그 앞에는 멀리 아차도의 자연풍경이 펼쳐져 있다. 아차도 주민들은 노동으로 점철된 일상을 보내고 있는데, 여기 ‘공간 섬알’에 와서는 그 일상에서 벗어나란 뜻이었다. 그래서 일상으로 통하는 길목 쪽을

막아버렸다. 그리고 대신에 그 외벽은 거대한 캔버스가 되었다. 마음껏 그림을 그리고 조형물을 붙였다. 한편 공간 안에 있을 때는 저 멀리 자연을 바라보면서 진정한 휴식을 취하고 예술의 세계와 만나도록 만들었다는 것이다.

설명을 듣고 나서 다시 한번 카페 바깥을 한 바퀴 돌았다. 겉보기에 보잘것없었던 카페 건물이 갑자기 하나의 작품처럼 다가왔다. 그 작품은 인간을 향한 사랑과 연민을 속삭이고 있었다.

섬에 사는 주민들이 아니면 외부인들은 이 무인카페를 찾기가 쉽지 않다. 아니 찾아도 이곳이 무인카페인 줄 모른다. 무심코 지나쳐 버릴 수가 십상이다. 아무런 간판도 안내도 없기 때문이다. 그러다 길목에서만 바라보지 않고 반대쪽으로 돌아본 나그네만이 비로소 이곳이 무인카페임을 발견한다. 어쩌면 우리가 소중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 일상의 관습적 시각을 버려야 한다는 걸 알려주는 것 같다.

그렇다면 아차도를 방문하여 이 무인카페를 한번 찾아보라. 이 꼭꼭 숨은 공간, 이 불친절한 카페를 마치 보물찾기라도 하듯 찾아보라. 그러면 우리는 심산유곡의 암자에서 고승의 혜안을 만난 기쁨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면 우리는 이 작은 섬의 무인카페에서 어떤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섬들 사이에 카페가 있다. 바다에 아련히 떠서 영혼의 본향처럼 꿈꾸는 곳 그 카페에 가고 싶다.



## 공간 섬알

주소 인천광역시 강화군 서도면 아차도길 100

연락처 achsunshine@gmail.com

SNS @space\_seomal

#무인카페 #강화도 #아차도 #전시공간 #문화공간



## 2 | 느려도 괜찮아 거북 기타 거북이밥(시인의 사회)





“이 동네가 예전엔 거북이 마을로 불렸어요. 그래서 거북이들이 밥을 먹듯 자주 들리는 곳이 되었으면 해서 이름을 ‘거북이밥’이라고 지었죠.”

인천광역시 서구 길주로 136번길 21, 1층 103호. 거북시장 근처의 오래된 골목길에 ‘거북이 밥’이라는 예쁜 이름의 기타 연습실이 있다. 본래는 옆집인 세탁소에서 세탁물 보관창고로 쓰이다가 긴 시간 비워진 상태로 있었다는 이곳을 보고 강현구 대표는 첫눈에 반했다고 한다.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곳이라는 인상을 받았어요. 누구든 편하게 놀러 수 있는 곳 말이예요. 당시에 제 개인적인 일 때문에 많은 기대와 확신을 가질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이곳을 꼭 문화공간으로 만들고 싶었어요.”

올해 초부터 갑작스럽게 들이닥친 코로나 19로 인해 강현구 대표도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겪게 됐다고 한다. 싱어송라이터로 활동하고 있는 그가 오래전부터 준비해 온 앨범 발매가 무한정 늦춰진 것이다.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컸고 한동안 의욕을 상실한 채 무기력한 시간을 보냈다고 한다. 하지만 다시 일어서야 했고, 이왕이면 혼자가 아닌 여러 사람과 함께 어울려 음악을 나눌 수 있는 곳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렇게 시작된 ‘거북이밥’. 처음엔 이 공간을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지 고민이 많았다고 한다. 그런데 때마침 인천문화재단의 ‘동네방네 아지트’ 사업에 선정돼 드디어 무료 기타 강습으로 첫발을 내딛게 됐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기타를 갖고 있는 거 알고 계세요? 언젠가는 한 곡을 완주하게 될 거라는 기대를 안고 톼툼이 코드를 연습하다 그 꿈을 잊고 지내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인천서구문화재단도 버스로 두세 정거장이나 되고 동사무소에서 하는 기타 강습도 수강료를 내야 하는데, 매주 한번, 두 시간 동안 진행되는 ‘거북이밥’의 기타 강습은 무료로 진행되는 데다 따뜻한 차와 간식까지 제공되니 마다할 이유가 있을까? 소셜네트워킹서비스에 강습에 대한 공지를 띄우자 지역에 상관없이 신청이 들어왔고 ‘거북이밥’ 앞을 지나다니는 석남동 주민도 두 분이나 찾아왔다. 공간이 다소 비좁은 관계로 수강 제한 인원은 아쉽게도 6명. 그런데 뜻밖에도 수강생들의 연령대가 아주 다양하다. 60대부터 40대, 30대, 20대까지. 그야말로 전 세대를 아우르는 기타 수업이 됐다.

“한 번은 자신의 인생곡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정말 다양한 곡이 나오더라고요. 60대 수강생들이 추천한 ‘꽃반지 끼고’ 같은 곡은 저도 처음 들었거든요. 한편으로 20대가 자신의 인생곡으로 선택한 오마이걸의 ‘Twilight’ 같은 신세대 음악을 60대 분들은 신기해 하셨어







요. 할아버지와 손자가 함께 수업을 하는 세미나 과연 정서가 공유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졌는데 시간이 갈수록 전혀 다른 분위기가 만들어졌어요.”

60대의 할아버지 세대와 40대의 부모 세대 그리고 20대의 손자 세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이지만 좁은 공간에서 부딪치다 보니 시간이 갈수록 친근해지고 돈독해지는 게 피부로 느껴졌다고 한다. 세대를 뛰어넘어 기타에 대한 애정과 공감을 묵묵히 응원하는 동지가 생긴 셈이다. 기타와 음악 안에서 모두 진정한 친구로 거듭나게 된 것이다.

“거북이가 느리잖아요. 하지만 거북이의 입장에서는 느린 게 아니죠. 자신의 속도대로 가고 있는 거니까요. 그냥 본인의 속도대로 가는 거, 그렇게 온전히 자신의 방법으로 기타를 즐기면 돼요.”



강현구 대표는 ‘거북이 밥’의 기타 수업 ‘느려도 괜찮아 거북 기타’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바탕으로 내년도 사업 계획도 세우고 있었다.

“집에 방치된 기타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함께 음악을 연주하니까 삶의 활력소를 찾게 됐다고 말씀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내년에도 기타 수업은 계속 진행할 계획이에요. 앞으로도 인천문화재단에서 이런 문화 프로그램에 지원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같은 작은 문화공간들이 더 깊숙이 지역 문화에 뿌리를 내릴 수 있었으면 합니다.”

오랫동안 셔터 문이 내려져 있던 상가에 불이 들어오고 새롭게 단장을 마치고 나니 오가는 분들이 신기한 듯 기웃대기도 하고 차를 한 잔



마실 수 있냐며 찾아오기도 한다고 한다. 우리 동네 아지트는 그렇게 만들어지는 게 아닐까? ‘거북이밥’도 오래오래 석남동의 아지트로 남아주길 바란다.



### 거북이밥(시인의 사회)

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길주로 136번길 21, 1층 103호(석남동)

SNS @poets\_society032

#문화공간 #서구 #공유공간 #작업실 #스튜디오



# 3 | 서로에게 베푸는 마음이 만들어가는 곳 우리 동네 사랑방 서구민중의 집



인천은 한국 노동운동의 역사에서 큰 의미를 가진 곳 중의 하나이다. 70년대 노동운동을 대표하는 통일방직 사건으로 기억되는 인천의 노동운동은 험난했던 민주노조의 설립과 발전사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그 시절은 지나갔지만 주변의 약자들과 이웃들을 사랑하고 보듬는 정신은 여전히 남아 이주노동자와 지역주민들의 아지트 역할을 하고 있는 곳, '우리 동네 사랑방 서구민중의 집'을 다녀왔다.

서구 석남동에 위치한 '서구민중의 집'은 2013년에 설립되어 현재까지 320여 지역주민들의 회비로 운영되는 자율적인 공간이다. 석남동 주변은 다문화 가정이 많이 거주 중이고 외국인 근로자들의 유입도 꾸준히 증가되고 있는 지역이다. 서구민중의 집은 이들이 지역의 일원으로 정착하고 소속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문화다양성의 관점에서 참여자들의 주체성, 지역과 관계 맺기를 할 수 있도록 돕는 플랫폼을 지향한다. 생활 속에서 접하는 친숙한 형식으로 서구 지역의 문화 예술 교육의 허브 역할을 하며, 선주민과 이주민,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한데 어울려 차별 없이 주민이 주인공이 되는 생활문화 공동체로서의 방향성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다.



‘서구민중의 집’의 대표를 맡고 있는 이해향 대표는 진보신당에서 일을 하다 살고 있는 지역 가까이에서 민중의 집을 개소하게 된다는 것을 알고 회원으로 처음 인연을 맺었다. 그 후 운영을 맡고 있던 창단 멤버가 지역 주민들과 의기투합하여 목공방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서구민중의 집’과 분리되면서 2016년부터 ‘서구 민중의 집’의 대표로써 운영을 맡고 있다.

마을 사람들을 위한 사랑방으로 시작했지만 7년 정도 운영하면서 프로그램도 필요에 따라 다양해졌다. 발달장애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미술교실, 마을 독거노인 분들과 함께 그림도 그리고 식사도 하며 즐기는 공유 부엌 프로그램 <그림 이야기>가 있는 마을밥상>, 돌봄 공백이 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방과 후 프로그램인 <N개의 골목문화 놀이터> 등이 대표적이다. 소외되고 흩어져 있던 주민들을 접하





고 필요한 것들이 생기면 함께 모여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곳의 역할이라고 소개한다.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제공하려고 하는 것도 예술과 문화가 인간이 향유해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것을 누리려면 시간과 비용의 문제가 걸림돌이 될 수 있고, 시간의 문제가 곧 거리의 문제이기에 생활 속에서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주민들을 위해 문화회관이나 체육시설 등의 큰 규모의 지원도 중요하지만 가깝게 언제든지 찾을 수 있는 곳이 많아지는 것이 현실적으로 더 필요하다고 보았다.

민중의 집에서 진행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많았지만 이주노동자와 함께하는 한글교실은 2013년 문을 연 이래로 지금까지 계속해 온 프로그램이다. 현재는 외국인들이 기본적인 한국어 능력을 검증 받아야 한국에서 일할 수 있지만 민중의 집이 개소할 당시만 해도 이주노동자들이 한글을 배우지 않고 입국하여 바로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니 어려움이 더 많았다. 그래서 이주노동자들을 위한 한글교실을 열고 무료 노무 상담을 도왔다.

올해 ‘서구 민중의 집’에서 진행하는 동네방네 아지트는 이 한글교실을 통해서 만난 주민들과 함께하는 연계 활동으로 <예술로 소통하기>라는 이름으로 다문화 가정 및 이주노동자들과 함께 진행되었다. 미술

을 통해 언어 향상과 더불어 건전한 여가를 향유하고자 기획되어 이주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면서 자연스럽게 이웃도 사귄다.

수업에서는 본인이나 가족의 사진, 고향의 상징물을 팝아트 기법을 통해 그리고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풍경을 파스텔 기법으로 배우기를 진행했다. 11월에는 활동을 마무리하는 작은 전시회를 열 계획이다.

이애향 대표는 마을 주민들이 서로에 대한 선입견이나 여러가지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지만 이곳에서 함께 만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면서 점차 오해가 풀어지고 인식이 개선되고 있음을 느낀다. 이렇게 이웃으로써 서로를 존중하며 배려하고 나누는 호혜와 연대로서의 마음이 민중의 집을 유지해오고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

나와 이웃에서 나아가 나와 지역, 나와 환경 등 다양한 관계들이 이러한 호혜의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경쟁보다는 협력을, 자원의 소비보다 순환하는 문화를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할 생각이다.





### 우리동네 사랑방 서구민중의집

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로 78, 2층

연락처 032-573-2341

카페 [cafe.daum.net/seogupeople/](http://cafe.daum.net/seogupeople/)

#우리동네사랑방 #서구 #생활문화공동체 #자율적공간







# 계양구, 미추홀구, 부평구 동네방네 아지트



# 4 | 해보면 알게 되는 출구 없는 즐거움! maker's 놀이터 해봄



밝은 햇살이 들어오는 넓은 공간에 놓여 있는 커다란 테이블. 눈을 돌리면 한 벽면에 굉장히 많은 종류의 보드게임과 각종 3D펜과 같은 도구들이 빈틈없이 채워져 있다. 계양구 굴현동에 위치한 ‘maker’s 놀이터 해봄’을 찾았다.

이곳의 대표인 박미숙씨께서 활기차게 이 공간을 소개해 주셨다. 기존의 보드게임 카페도 아니고 수업을 위한 교실도 아닌 이곳의 정체는 이름에도 나와 있듯이 ‘놀이터’이다. 이곳은 아이부터 어른까지 어우르며 원하는 사람들이 누구나 찾아와 놀 수 있도록 마련한 곳이다.

박미숙 대표는 교구를 활용해 아이들에게 수학을 가르치는 일을 오랫동안 해왔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해왔기에 일부터 지역 사회 안에서의 개인적인 교류나 활동을 거의 하지 않았다. 하지만 2018년 남북정상회담을 보고 감동을 느껴 자신이 사는 지역을 위해 작은 일이라도 해보자고 마음먹은 것이 지금의 ‘놀이터 해봄’을 만들게 되는 출발점이었다.

그는 교구 수학을 가르치면서 보드게임이 가지고 있는 교육적 효과와 아이들의 흥미를 이끌어내는 매력에 푹 빠지며 다양한 보드게임을 모으고, 보드게임 지도사 자격증까지 취득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학교나 지자체들과 새로운 일을 기획해보려고 했지만 개인적으로 해온 일을 증명하고 이력으로 남길 만한 경력이 부족함을 느꼈다고 한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진행하는 여러 가지 사업에 눈을 돌려 지원하게 된 것이 3년 정도 되었다. 처음에는 계양구에서 진행하는 혁신 교육 사업 공모를 보다가 자신이 할 수 있을 것 같아 지원했다. 이 사업을 통해 처음 진행하게 된 것이 청소년 아이들에게 보드게임을 가르치고 이것을 배운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을 도와주는 ‘또래 코칭’ 프로그램이었다.

이 프로그램에 참가한 학생들이 보드게임을 배우고 그것으로 지역아동센터나 학교에 가서 직접 설명도 하고 함께 게임도 하는 활동을 했다. 지역 축제에도 참가해서 무료 부스를 운영하며 봉사활동으로 행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러한 활동을 2년 정도 하면서 참가한 아이들이 느낀 바가 컸다. 그동안 해왔던 봉사는 학교에서 요구하는 봉사시간을 때우기 위한 의미 없는 시간이었던 반면에 직접 사람들을 대면하고 자신이 아는 것을 나누는 것은 어렵지만 피부로 느끼는 뿌듯함이 있었다고 입을 모아 이야기했다.

박미숙 대표에게도 아이들이 체감하는 뿌듯함과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이 일을 계속하는 힘이 되어주었다. 이러한 일들이 개인에게 돌아오





는 경제적 이익이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한창 사춘기를 통과 중인 아이들이 보드게임을 접하고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니 계속해서 이런 활동을 이어나가고 싶었다.

‘놀이터 해봄’을 함께 꾸려가는 김세이 선생님께서는 박미숙 대표와 함께 청소년을 사랑하고 지역 사회에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으로 시작된 프로그램이었기에 지역아이들이 함께할 수 있는 공간이 너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maker’s 놀이터 해봄’은 ‘만들어봄! 놀아봄! 뭐든지 해봄!’이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작년 11월에 오픈했다. 놀이터 해봄이 생기기 전에는 모든 모임 때마다 박미숙 대표가 직접 모든 보드게임 교구들을 가지고 다니며 진행했다. 참가자가 많을 때는 20명씩도 모이곤 했는데 그 인원이 함께 갈 수 있는 장소가 턱없이 부족했다.

지원 사업에 선정이 되어도 공간 대여에 관련된 예산이 없었기에 장소를 무료로 빌리기 위해 대관료 대신 박미숙 대표가 무료 교구 수학 수업을 자청해서 하기도 했다. 즐겁게 놀고 싶어도 갈 곳이 없는 청소년 아이들의 놀이문화 자체가 사라져 간다는 안타까움에 지금의 공간을 만들게 되었다.

문화라는 것이 예술 영역에만 적용될 것 같지만 ‘놀이’도 문화라는 생각으로 인천문화재단의 문을 두드렸고 올해 처음 동네방네 아지트를 시작했다. 아이들에게 보드게임이 좋은 이유를 문자 게임을 통해서 느끼는 즐거움에 대해 말했다. 하지만 무엇보다 보드게임은 소통의 도구가 되어준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놀이이기에 보드게임을 하면서 다양한 사회적 소통을 해야만 한다. 게임의 룰을 따르면서 타인을 배려할 줄 알아야 한다. 모르는 사람과도 보드게임을 하면 금세 친해진다.



이러한 장점 때문에 청소년기 자녀를 둔 가정에 가족 보드게임을 적극 추천한다. 교육적인 장점도 참 많다. 수학적인 개념들을 다양하게 적용해서 설계된 게임에서 승리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들을 모색하면서 창의력도 문제해결력도 키워진다.

앞으로의 동네방네 아지트 모임 계획을 문자 보드게임과 3D펜으로 지역주민들이 놀이터처럼 편안하게 찾아와 즐길 수 있도록 행사를 기획했다고 한다.

지난 8월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되며 오프라인 모임을 중단하는 대신 보드게임을 무료로 대여해주고 온라인으로 모임을 진행했는데 다시 11월부터는 ‘놀이터 해봄’에서 함께 모이는 3D펜을 활용한 만들기 체험을 계획 중이다. 가족이 함께하는 보드게임 행사도 계속 진행 중이다.

청소년뿐 아니라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모이도록 하고 싶다. 보드게임의 장점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이를 통해 더 즐겁게 소통하는 지역 공동체를 만들어나가고 싶기 때문이다.



#### MAKER'S놀이터 해봄

주소 인천광역시 계양구 굴현동 양지로 132 3층

SNS @playhaebom

#문화공간 #계양구 #놀이공간 #모임공간 #메이킹문화





# 5 | 청년 예술가의 작은 작업실 모모하시니의 만물작업







미추홀구 주안동의 오래된 주택가 골목. 한눈에 보아도 밝고 퇴색한 동네다. 이곳에 사는 분들도 대개는 나이 든 어르신들이다. 수십 년을 살아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곳, 그저 골목 골목마다 세월만 햇볕과 바람에 하염없이 말라가는 곳이다.

이런 곳에 예술가들의 창작 공간이 있다니! 기자는 보물찾기라도 하듯 그곳을 찾아내야 했다.



미추홀구는 몇 년 전부터 구도심의 낡고 낙후된 거리를 젊고 새로운 장소로 탈바꿈하는 작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청년창업특화거리' 사업 같은 것이 대표적인 예다. 그 바람에 이곳에 이채로운 재능을 지닌 청년 예술가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다.

‘모모하시니’도 바로 그런 변화의 제 일선에 선 공간이다. 주안의 낡은 주택가 골목에서 고운 천연염료 한 방울이 떨어진 듯 자리 잡고 아있다. 그 한 방울이 점차 번져나가 마침내 이 골목 전체를, 이 마을 전체를, 이 도시 전체를 물들일 날을 꿈꾸며 도사리고 앉아있다.

그런데 ‘모모하시니’라니? 도대체 뭐 하는 곳이야?

기자가 공간에 들어서자마자 다짜고짜 물은 질문에 주인 김현주 씨는 웃으며 대답했다.

“맞아요. ‘뭐 하는 곳’이에요.”

‘모모하시니’는 발음 그대로 ‘뭐 뭐 하시니?’란 뜻이다. 이 말은 곧, 이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이 어느 한 가지로 규정짓기 어렵다는 뜻이다. 그래서 주인은 자기들의 작업을 ‘만물 작업’이라고 했다. 여기서 만화랑 디자인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면 어떤 작업도 다 한다고 했다. 웹툰 만화를 그리기도 하고, 가구를 만들기도 하고, 소품 공예를 하기도 한다. 그런가 하면 동호회를 만들어 회지를 발간하기도 한다. 그러고 보니 공간 이곳저곳에는 손재주 좋게 만들어낸 다채롭고 예쁜 아트 작업 소품들이 진열되어 있다.

그런데 이렇게 이름 지은 데에는 또 다른 사연도 있었다. 미하엘 엔데의 <모모>에서 주인공 이름과 현주 씨의 아들 이름 ‘하신’을 합친 것이기도 하단다. 하신이는 몇 해 전에 그녀에게 별뿔별같이 찾아온 아이였다. 시간을 찾아주는 아이 ‘모모’와 세상에 문득 태어난 아이 ‘하신’은 그동안 해왔던 그녀 작업의 스펙트럼을 바꾸어버렸다. 개인의 삶에 집착했고, 시간의 무게에 쫓겼던 것을 반성했다. 대신에 아이의 세계, 동화와 판타지의 세계에 눈을 떴다. 이 세계는 자유로움과 평화로움을 동시에 가져다주었다. 아이와 같은 순수와 동심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작업은 훨씬 풍부해지고 깊어졌다.





김현주 씨는 그 경험을 이렇게 이야기했다.

“지난날 남편이 생계를 위해 막노동을 나설 때, 세상을 원망하고 한탄했죠. 예술로는 먹고 살아가기 힘든 세상이 야속했었죠. 그런데 하신 이를 얻고 난 뒤에는 신기하게도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이 세상을 새로 살아가기 시작한 것처럼 신이 났죠.”

일러스트레이터 김현주 씨는 동업자이자 남편인 만화가 오현석 씨와 이 작업 공간을 만들었고 하루 24시간을 함께 일하고 있다. 그런데 그들에게 아이가 생기면서 육아라는 새로운 일거리가 던져졌다. 그러다 보니 ‘모모하시니’는 일상과 일이 공존하는 공간이 되어 버렸다. 요즘은 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녀 부부가 작업에 몰두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생겼단다. 하지만 작년만 해도 부부의 일터는 그대로 육아 공간이었다. 작업실에서 뛰어노는 아이 뒤흔다꺼리하면서 일하다 보니 일상과 일이 분리되지 않았다. 하지만 여기서 관점의 전환이 일어났단다.

그들 부부의 일이란 다름 아닌 예술이고 보니 그 예술은 이제 오히려 본령을 되찾은 것 같았단다. 일상생활과 동떨어진 예술이 아니라 우리 삶의 피와 땀과 눈물이 배어있는 예술이어야 한다는 깨달음을 얻었단다.

그래서 아이를 주인공으로 만화를 그리기 시작했다. 또 아이를 캐릭터로 삼아 일러스트로 작업해서 아트북을 출판할 준비를 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눈을 바깥으로 돌려 이웃을 살피게 되었다. 동네 사람들을 불러 모아 일러스트 동호회를 만들었다. 작년에 그들과 창작 신문을 10회차나 만들었다. 올해는 코로나로 온라인 중심으로 참여했는데도 벌써 7회나 결과물을 만들어냈다고 한다. 대부분 동네 주민들로 예닐곱 명이 모이는데 남녀가 반반이란다. 남자들의 참여도가 높다니 뜻밖이었다.

동호회는 동네에서 사라져가는 풍경 담기에 초점을 맞추었다. 구석 구석 돌아다니며 철거 직전의 폐가라든가, 퇴색한 뒷골목의 담 사진을 찍기도 하고, 그걸 바탕으로 일러스트 작업을 하기도 했다. 개중에는 학창 시절 미술 특기생으로 활약한 이도 있었지만, 대부분 아마추어였다. 동호회원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모모하시니’ 주인 부부의 도움을 받으며 기량이 늘어갔다. 만들어낸 회지는 신문처럼 동네에 배포



하였다. 낡고 오래된 주택가 골목에 때아닌 예술 바람이 불었다. 어르신들에게 아직 생소한 만화 일러스트이지만, 자기 동네를 그린 그림에 점차 관심을 보이고 호감을 보였다.

하지만 어려움도 있었다. 지금은 없어졌지만, 동네에서 멀지 않은 곳에 불법유흥업소들이 밤마다 붉은 조명 아래 성매매 영업을 하던 때가 있었다. 동호회는 이곳의 풍경을 만화 일러스트로 구성하였다. 우리 삶의 치부를 고발하고 성매매 여성들의 고통에 눈을 돌려보자는 취지로 그린 것인데, 이를 본 주민들이 동네의 어두운 면을 드러내 평판을 나쁘게 만들었다고 항의해와 진땀뻘 적이 있었던단다. 예술이 이해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법이다.

두 예술가 부부의 작은 작업실이 그들의 꿈과 이상이 실현될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라며 작업실을 나섰다. 때마침 앞집 시멘트 담벼락에 쇠창살 그림자가 드리워 있다. 아까 작업실에서 본 사진과 똑같은 장면이었다. 세월에 퇴색한 벽과 날카로운 쇠창살의 그림자가 이곳 소외된 사람들의 단절된 삶을 보여주고 있는 듯이 보였다.

그래, ‘모모하시니’의 작은 도전이 저 회색 벽과 쇠창살을 넘어서기를.  
그래, ‘모모하시니’의 청년 예술가들이 절망하지 않고 꿈을 펼칠 수 있기를.

동네방네  
아지트

#### 모모하시니의 만물작업

주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하로183번길 15, 1층  
(주안동 809-5)

SNS @momohasiny

#작업실 #미추홀구 #오픈작업실 #만화클래스



## 6 | 장애인과 만난 대중 연예인 에이볼스튜디오





인천시 미추홀구 구월로 17, 우리가 '석바위'라 부르는 인천의 구역별 요지 중 하나다. '에이블스튜디오'는 거기 어느 교회 지하 1층에 터 잡고 있었다.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깜짝 놀랐다. 공간의 규모가 예상과는 달리 매우 컸기 때문이다. 공연장은 40여 평 정도의 넓이로 객석에는 많게는 100명도 앉을 수 있을 듯 보였다. 그리고 전면 무대에는 그룹 밴드가 공연할 수 있는 악기들이 즐비하게 놓여 있었다. 옆에는 응접실도 있었는데 바로크풍의 탁자, 의자, 장식장들이 놓여 있어 마치 유럽의 어느 귀족 응접실에 온 듯한 인상을 주었다. 이렇게 큰 공간일 줄 몰랐다고 하자, 이곳의 운영 책임자인 이상명 씨는 저쪽으로 녹음실, 방송실까지 있다고 더 신이 나서 자랑했다. 그야말로 웅만한 공연은 충분히 소화해 낼 공간이었다.

‘하지만 크기만 크면 뭐하겠는가?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활동내용이 중요하지.’ 이런 의문을 품고 인터뷰를 더 진행했다. 그런데 이런 의심은 기우였다. ‘에이블스튜디오’는 참으로 의미 있는 활동을 하고 있었다.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행사를 해요.” 이상명 씨가 말했다.

발달장애인? 지적장애나 자폐성 장애, 그 밖에 통상적인 발달이 지연되거나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을 이르는 말이다. 공간을 본 선입감에 이곳을 연예인들이 중심이 되어 공연이나 하는 장소로 알았는데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공간이라니? 그러고 보니 공간의 명칭 ‘에이블(Able)’이 이해되었다. 장애(Disable)를 이겨내는 이름이다.

‘에이블스튜디오’는 ‘에이블문화장애인협회’(회장 이성만)에서 개설한 공연장이다. 그래서 그동안 인천 장애인 합창제를 비롯하여 가요 교실과 음악·영화 감상실, 모임 활동으로 향초 만들기나 자기만의 음악 CD 만들기 등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벌여왔다. 올 10월에는 <



제1회 에이블과 함께하는 거북이가요제>도 개최하였다. 이 가요제는 발달장애인만을 위한 가요제였다. 그런데 발달장애인이 출연뿐만 아니라 직접 제작진으로도 참여하여 장애인은 안 된다는 편견을 깼다. 실수를 저지르고 어렵게 진행이 되었지만, 행사를 치러내고야 말았다. 웃고 울고 모두가 손뼉을 쳤다. 장애인 본인은 물론 가족과 생활보호 선생님들, 협회 운영진들, 예술단 봉사자들까지 함께 감동한 축제였다고 이상명 씨는 전했다.

인권은 누구나 정당하게 누려야 할 권리다. 우리 사회 어느 사람도 자기 인격의 존엄함을 훼손당할 수 없다. 사회적으로 차별받는 소수자들, 약자들, 소외된 사람들도 그들의 인권을 존중받아야 한다. 장애인은 그 대표적인 예다. 장애인의 인권은 선진 사회냐 아니냐를 가리는 척도가 된다. 다행히 오늘날 대한민국은 장애인의 인권에 대하여 법적 제도적 장치가 잘 마련되어 가고 있다.







그러나 법적 제도적 장치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사회적 인식이다. 김두식은 자신의 저서 <불편해도 괜찮아>에서 장애인을 바라보는 일반인들의 시각을 비판했다. 장애인도 사회적 약자이므로 그들을 보살피고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은 잘못이라고 했다. 그는 장애인을 시혜의 대상으로만 볼 게 아니라, 그들이 비장애인과 함께 이 사회의 일원으로 참여하여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했다.

그렇다. 장애인은 다소 불편하기만 할 뿐 똑같은 인격체이다. 그러므로 사회 곳곳에서 그들과 함께 울고 웃고 떠들며 지내야 한다.

‘에이블스튜디오’는 이러한 사회적 인식의 선진 기지였다.

발달장애인과 함께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없었던 게 아니었다. 이상명 씨는 처음에는 몇 번씩이나 그만둘 결심을 했다고 했다. 특히 공연장의 물건을 깨트리고, 망가뜨렸다. 또 장애로 인해 활동 중에 다칠 위험도 늘 도사리고 있었다. 비장애인들에게는 필요 없는 기구나 시설이 그들에게는 필요하기도 했다. 그것들을 확충하기 위해선 재정적 지원도 절실히 필요했다. 이 모든 것들이 이상명 씨를 망설이게 하였다.

하지만 하루 이틀 지나면서 이 공간에서 그들이 얼마나 행복해하며, 얼마나 성취감을 느끼는지 그들의 순수한 미소에서 발견하게 되었다.



그리고 장애인 가족들의 눈물 어린 눈에서 그들의 아픔이 잠시나마 치유되는 보람을 느꼈다. 또 주변의 도움을 주시는 많은 분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싶지도 않았다. 그래서 이상명 씨는 이 어려운 일을 꾀꿔이 헤쳐 나왔다.

이상명 씨는 인천 연예예술인연합회 사무국장이기도 하다. 그의 인천 대중예술인을 향한 사랑과 관심도 발달장애인 못지않게 뜨겁다. 그래서 스튜디오는 가난한 대중예술인들에게 수시로 활동 장소로 제공한다. 그리고 그들을 위한 무대를 꾸며주기도 했다. 올해에는 코로나 사태로 더욱 어려운 대중예술인들에게 무관중 온라인 공연의 장을 열어주었다. 7월에 <제24회 i-POP 페스티벌>, <인천 7080 열린 음악회> 등이 그것이었다.

오늘날은 대중 연예 지상주의의 시대다. 각종 매체를 통해 대중 연예가 범람한다. 그런데 문제는 상업주의와 결탁한 것이다. 어느덧 대중

연예는 자본의 노예가 되어 연예 고유의 사회적 기능이나 윤리를 저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 연예는 우리 삶의 희로애락을 표현함으로써 사람들의 마음을 정화해주며 사회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역할이 있다.

이런 면에서 ‘에이블스튜디오’는 도덕적 연예인의 길을 보여주고 있다. 연예가 어떻게 이 사회에 공헌하고 가치를 창조해내는지 가르쳐주고 있다. 신이 주신 자신의 재능을 남들에게 돌려주는 것이다.

오늘도 각종 미디어에는 연예 뉴스와 오락 채널들이 홍수처럼 넘쳐나고 있다. ‘에이블스튜디오’는 그 홍수의 범람 속에서도 고고한 섬처럼 침몰하지 않고 은연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동네방네  
아지트

#### 에이블스튜디오

주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월로17 BF01

연락처 010-5332-2970

#북합문화공간 #미추홀구 #연습실 #다목적교육공간



# 7 | 지금 이 곳은 지금에 맞게 복합문화공간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문화예술 관련 모임이 취소되고 있는 와중에도 우리 곁에 여전히 시민들의 아지트 역할을 이어가고 있는 문화공간들이 있다. 인천지하철 1호선 부평시장역 근처에 위치한 ‘복합문화공간 지금’은 창작극과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공연창작소 지금’

이 운영하는 공간이다. 처음에는 극단의 연습실로 사용했던 곳인데 연습실로만 사용하기엔 아쉽다는 의견이 많아 인천광역시에서 지원하는 <천개의 문화 오아시스>사업을 통해 리모델링을 거쳐 시민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 지금’으로 재탄생하게 되었다.

‘공연창작소 지금’을 운영하고 있는 이은선 대표는 대학에서 연기나 연출이 아닌 국문학 전공이었지만 동아리를 통해 연극을 처음 접하고 극단에 입문하게 되었다. 그 후 뮤지컬 전문 극단에서 공연하고 연기를 해오다 결혼 후 공백기를 가지게 되었다. 30대 후반이 되어서야 학교 예술 강사 일을 계기로 다시 연극을 시작했다. 강사로 일을 하면서 느낀 경력의 공백에서 오는 부족함 때문에 대학원에 진학해서 연극교육학을 공부했다. 글 쓰는 것, 스토리를 만드는 것에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던 이은선 대표가 매년 창작극 하나씩은 써서 공연하자는 마음으로 젊은 날 극단에서 만났던 친구들과 의기투합하여 2009년 극단을 결성하였다.



2019년 창단 10년을 맞이한 ‘공연창작소 지금’은 대한민국연극협회 인천지회에 정식 등록된 정단체로 활동하고 있다. 정단체가 되려면 극단에 소속된 5명~15명의 전문 배우들이 4년의 활동자료를 증빙해야 인정될 수 있다. 그만큼 내공과 역사가 탄탄한 극단인 셈이다. ‘공연창작소 지금’에서는 다양한 예술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015년부터 베트남 하노이 극단 ‘뚜오이째’와 함께 같은 작품을 두 언어로 공연하는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해오고 있다.

예술 교육사업도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복합문화공간 지금’은 인천의 유일한 문화예술교육사 실습처로서 예술 강사들을 육성하고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을 통해 유소년 연극 활동을 지원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1년에 창작극 한 편씩은 쓰자는 첫 다짐처럼, 지역 극단으로서는 드물지만 창작극을 계속해서 제작하고 공연하고 있다. 극단 초기에는 이은선 대표가 직접 창작극을 집필하고, 연출하고 연기까지 한 작품들로

무대에 올렸지만 현재는 연출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있다.

최근에는 이난영 작가와 함께 <각다귀들>, 극단 창단 10주년 기념 창작극 <웃으며 안녕>이라는 작품을 만들었다. 또한 <봄봄>, <B사감과 러브레터>,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와 같은 근대소설을 각색하여 드라마를 만들어 음악을 입히고 즉흥악기를 활용하여 효과를 즉흥적으로 연주하는 <사랑가>는 ‘공연창작소 지금’이 선보이는 ‘음악극’이라는 특별한 장르의 창작극이다.

공간을 직접 방문해 보니 조명과 연습을 위한 전면 거울, 세트처럼 꾸며진 작은 무대와 객석까지 필요한 요소들이 곳곳에 설치되어 있었다. 작은 공간이라 객석은 많지 않지만 낭독극(음악극)에 알맞은 공간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작년에 이 장소를 개방하면서 극단이 운영되는 동안 관계해 오던 주변의 문화 예술단체들이 사용하는 연습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내어주고 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연습공간들이 대부분 운영을 중단하면서 모임 공간이 부족해지고, 모이더라도 소규모 인원이 모일 수 있는 곳을 선호해서 오히려 많은 단체들이 이 공간을 찾아주었다.





이곳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문화예술 소모임 중 올해의 동네방네 아지트는 <우리동네 연극배우>라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작년 시민 연극 배우 팀을 꾸려 가르치고 시민연극제에 나간 것을 계기로 모임이 이어지고 있다. 안타깝게도 올해 시민연극제가 연기되면서 연기할 수 있는 무대가 사라졌지만 연극을 계속하고 싶었기에 동네방네 아지트 사업에 지원하게 되었다고 한다.

코로나로 계획한 것보다는 자주 만나지는 못했지만 가까운 곳에서 연기에 대한 갈증을 해소 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받게 되어 좋았다는 피드백을 전했다. 올해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라는 작품으로 결과발표회를 준비 중이다.

인터뷰 말미에 이은선 대표에게 10년 넘게 극단을 이끌어 올 수 있었던 원동력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물었다. 잠시 생각에 잠겼던 이은선 대표는 여성 극단 대표로서 느꼈던, 또한 예술 단체를 꾸려나가야 하는 어려움에 대해 잠시 말했다. 연극 대사 중에 '나는 버스를 탔는데 언제 내려야 하나. 내려야하나 말아야 하나.'라는 대사가 꼭 자신의 마음을 말해주는 것 같았다고. 극단을 운영한다는 것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리지 못하는 버스에 마냥 앉아 있는 기분일 때도 있었지만 지금 해야 할 일들을 해왔고 그렇게 10년을 넘기니 책임감도 생겼다. 돌파구를 찾아내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발굴할 때 느끼는 재미가 에너지가 되어 극단을 지금까지 이끌어 되었다고 말한다.







올해는 더욱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지만 온라인 수업으로 빠르게 전환하면서 점차 새로운 방식을 모색해 나가고 있다. 다수가 참여할 수 있는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온오프라인 생중계 교육도 이미 진행 중이다. 화상회의 프로그램으로 작품 리딩도 가능하고 공연도 가능하다는 걸 깨달으면서 연극과 영상을 결합하는 방식을 새롭게 찾고 보고 ‘복합문화공간 지금’을 스튜디오로 활용해 볼 생각이다.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무대 공간을 넘어 공연 문화를 이어가는 지금의 길을 조금은 찾아낸 느낌이다.

동네방네  
아지트

### 복합문화공간 지금

주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94 지하

연락처 070-7360-5633

#복합문화공간 #부평구 #부평구연습공간 #연습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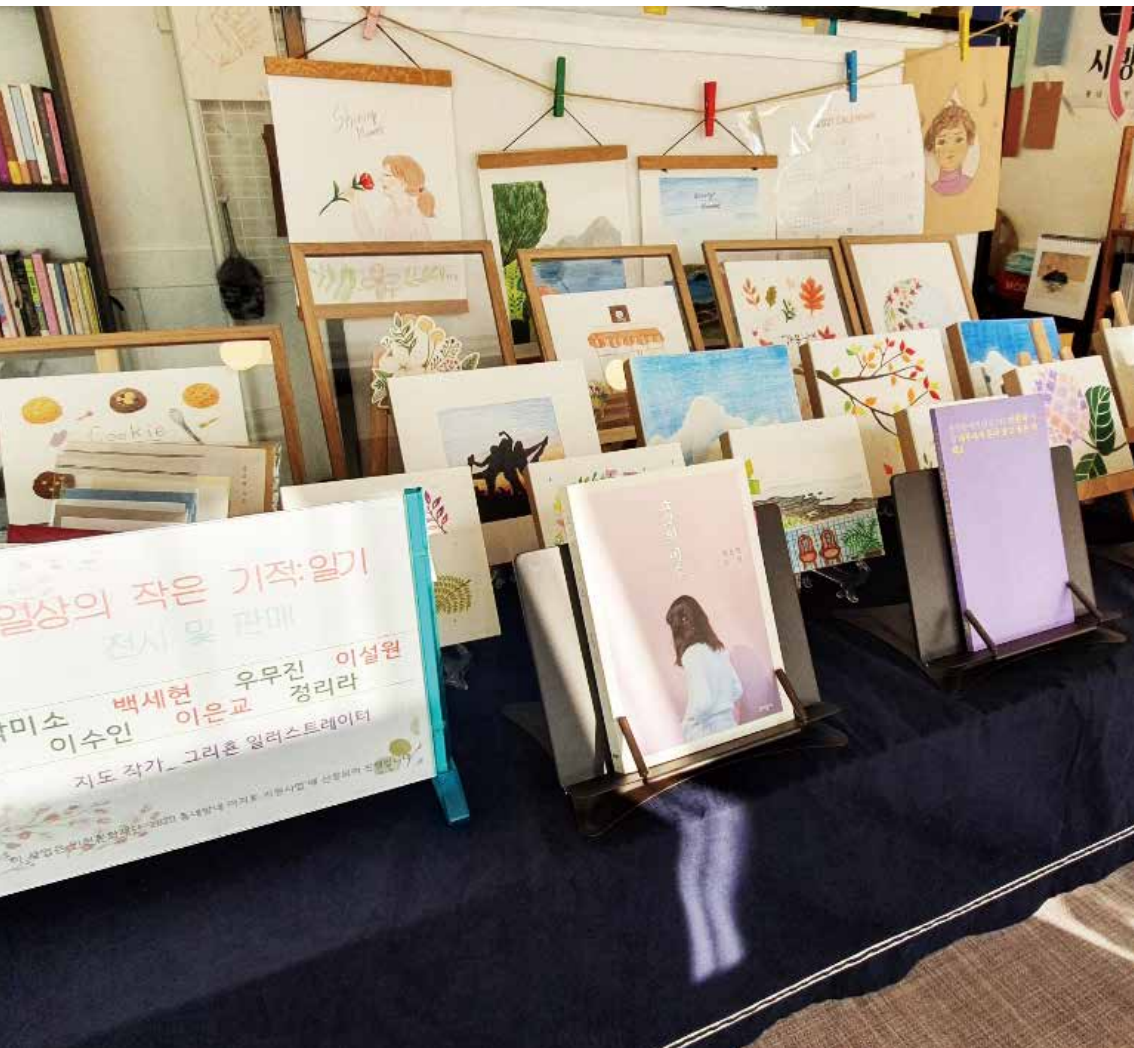




# 남동구, 연수구 동네방네 아지트



# 8 | 일상의 작은 기적 - 독서와 독후드로인 동네 책방 시방





분명 지도에는 목적지에 도착했다는 메시지가 나왔지만 그곳(인천 시 남동구 만수로 45번길 15, 11호)에는 책방이 아닌 식당만이 있었다. 아무리 주변을 둘러보아도 만수 시장 골목길에는 책방 비스무리한 곳도 찾을 수가 없었다. 하는 수 없이 인터뷰 약속을 잡기 위해 통화했던 이수인 대표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다.

“뒤쪽으로 돌아오시면 책방 간판이 보이실 거예요.”

거긴 공영 주차장이 있어서 책방은 없을 거라 짐작하고 돌아 나온 곳이었다. 그런데 없을 거라 생각했던 그곳에 정말 있었다. 작은 데크에 아기자기한 화분들이 놓여 있어 지나가는 사람들의 눈길을 끄는, 한 번쯤은 문을 열고 들어가 어떤 곳인지 둘러보고 싶게 꾸며진 아담한 동네 책방 ‘시방’이 자리하고 있었다.

“‘시방’이라는 이름에는 세 가지의 뜻이 담겨있어요.

먼저 시장 안에 있는 책방이라는 뜻이 있고요,

시를 접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뜻도 있고

지금, 이 순간이라는 뜻이 있어요.”

‘시방’을 책임지고 있는 이수인 대표는 아마도 세 번째에 방점을 찍은 듯하다. 요즘같이 아파트값이 화제가 되는 시대에 언젠가 든든한 재산이 될 것이 분명한 청약 통장을 털어 이 공간의 문을 열었다고 한다. 앞으로의 행복이 아닌 지금, 이 순간의 행복을 누리고 싶었던 것일 테다.

그렇게 만수 시장 안에 작은 책방이 문을 열자, 시장을 보러 왔다가 찬거리 사이에 책을 담아 가는 손님도 생기고, 시장 상인분들도 새로



생긴 이웃 가게를 구경하러 와서 한 권씩 사가기도 하고, 다섯 살 아들을 키우고 있는 이수인 대표와 마찬가지로 육아에 지친 엄마들이 잠시 숨을 고르러 찾아오기도 한다.

이렇게 시장 안의 책방, '시방'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하나둘 늘어나자 공연기획 일을 오랫동안 해 온 이수인 대표는 자신의 경험을 심분 발휘해 '일상의 작은 기적'이라는 제목의 문화프로그램을 기획했다. 인천문화재단의 '동네방네 아지트'에 선정돼 지원을 받게 된 것이다.

“책을 읽고 독후활동으로 색연필 드로잉 수업을 진행했어요. 책을 읽고 여러 사람들과 생각을 나누는 토론 활동도 의미가 있지만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 생각들을 그림으로 표현해 봤죠. 그림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많으셔서 그런지 색다른 경험이라며 즐거워하셨어요.”

그림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일러스트 작가인 그리혼 님이 찾아와 그림지도를 맡아 주었다고 한다. 색연필을 손에 잡아 본 지 까 마득한 어른들이 모여 서툴게 그림을 그리고 웃고 또 때론 눈물을 흘리며 나는 시간들은 잊을 수 없는 추억들을 남겼다. 그리고 그 추억들을 그냥 흘려버리기 아쉬워서 마지막 수업 시간에는 그간의 작품들을

전시하고 판매하는 시간을 계획했다. 이때 나오는 수익금은 지역의 취약계층을 위해 기부한다고 한다.

“저희 ‘시방’이 비록 작은 공간이지만 쓸모와 가치를 가진 공간이 됐으면 해요. 물질적으로 물론 이익을 얻기 힘든 곳이지만 이곳을 찾아오는 분들이 마음의 위안을 얻고 삶의 활력을 되찾는 곳이 된다면 좋겠어요. 우선 저부터도 이 책방을 운영하면서 자존감을 회복하는 경험을 했으니까요.”

올해 인천문화재단의 ‘동네방네 아지트’ 사업에 참여한 것을 기반으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공간을 활용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한다. 특히 올해 독서 모임은 정규 모임이 끝난 후에도 꾸준





히 진행할 예정이라는 반가운 소식도 전했다. 끝으로 이수인 대표는 이런 말을 전했다.

“시방, 지금을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지금의 행복을 전하는 공간으로 가꾸어가겠습니다. 올해 코로나 19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 한 해를 버틴 힘으로 앞으로도 오래오래 버티겠다는 다짐을 해요.”

‘시방’이 품고 있는 공간의 의미가 영원히 이어지길, 진심으로 응원한다.







동네방네  
아지트

### 동네 책방 시방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로45번길 15, 11호(만수동)

연락처 0507-1333-9894 SNS @sibang\_bookstore

#독립서점 #남동구 #책방 #모임공간 #만수동서점



## 9 | ‘술. 까. 톡- 슬기로운 직장생활’의 정운호 대표 꿈꾸는 음악 스튜디오





지금은 ‘장승백이’시장으로 이름을 바꾼 창대시장은 만수동은 물론 인천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만한 유명한 시장이다. 역사가 긴 만큼 조금은 오래된 곳이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창대시장 입구(인천시 남동구 인주대로 888번길 36(삼영빌딩), 201호)에 위치한 ‘꿈꾸는 음악 스튜디오’를 방문했을 때, 정말 깜짝 놀랐다. 사무실인 줄 알고 열었던 2층이 바로 음악 스튜디오였고, 만수동의 청년들이 다 모인 듯 결코 좁아 보이지 않은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때마침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조정이 됐던 터라 그간 이곳을 찾지 못한 청년들이 오랜만에 방문한 거라고 한다. 물론 손소독제와 체온 측정 그리고 마스크도 쓰고서 말이다. 만수동이라는 구실에 이렇게 청년들이 많았나?

“이 근처에 초·중·고등학교가 밀집해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오래된 학교이다 보니 음향 시설이나 음악 장비가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이곳을 연습실로 많이 제공하고 있지요.”

대학로에서 연극배우로 활동하다 고향인 만수동으로 돌아와 지역 문화 운동을 하고 있는 정운호 대표는 사회적 협동조합 ‘꿈꾸는 문화 놀이터- 뚝’을 올해로 7년째 이끌고 있다. 정 대표는 내일의 희망인 청년들이 문화에 대한 갈증을 풀기 위해서 무조건 서울로 향할 것이 아니라 내 고향 내 지역에서 충분히 누렸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단체를 만들었다고 한다.

“사실 학교만이 학교가 아니라 온 마을이 학교가 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뿐만 아니라 학생들만 새로운 것을 배울 것이 아니라 누구나 배우고 즐기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특히 음악요요.”

건물의 한 층을 온전히 음악연습실로 꾸민 이곳에는 이렇다 할 광고를 하지 않아도 음악을 찾아 모여드는 청소년, 청년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고 한다. 그렇게 좋아하는 음악을 위해 사람들이 모여들자 재미 있는 생각들도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기 시작했다.

“인천문화재단의 '동네방네 아지트' 사업에 선정된 '슬기로운 직장생활'도 여기를 찾아온 청년들의 제안에서 시작됐어요. 이렇게 좋은 연습실이 있으니, 같이 연주하는 모임을 만들면 좋겠다고 역제안이 들어온 거죠. 그렇게 음악을 하는 사람과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모임 일정이 잡히게 되고 그 사람들 대부분이 직장인이다 보니 직장인에 특화된 밴드를 만들어 보자, 그렇게 됐죠.”





‘슬기로운 직장 생활’의 부제는 ‘술. 까. 톡(Talk)’이다. 솔직히, 까놓고, 직장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 해 보자는 뜻이다.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털어놓은 후 그 이야기를 바탕으로 가사를 만들고 멜로디를 만들어 음악을 완성하는 게 이번 프로젝트의 목표다. 물론 곡이 완성되면 멋진 공연은 필수겠지.

“정말 버스킹처럼 멋진 공연을 기획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어렵겠죠? 사실 코로나19로 인해서 모임도 시작을 못했거든요. 일정만 잡으려고 하면 코로나19로 미뤄지고 미뤄지고 했어요. 다행히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돼서 최대한 빨리 모여 보려고요. 시간에 쫓기지만 곡을 만들어서 버스킹 대신 비대면 공연을 만들려고요.”

‘슬기로운 직장생활’의 시작을 눈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열다섯 명이나 있다고 한다. 모임이 시작되기만 하면 그동안 각자 집에서 혼자 갈고닦은 기량들을 마음껏 뽐내 멋진 공연을 똑딱 만들어 버릴 거라 의지를 다지고들 있다고 한다.



“올해는 공모 사업으로 시작을 했지만 내년에는 여기서 판을 더 키워볼 생각이예요. 좀 더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어 보려고요.”

비대면 사회를 겪고 나니 얼굴을 마주 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깨닫게 됐다. 그리고 오늘을 사는 즐거움을 내일로 미루지 말아야 한다는 것도 알게 됐다. 그러니 올해 이루지 못했던 많은 꿈들이 내년에는 그 이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꼭 그렇게 될 것이라 믿는다.





### 꿈꾸는 음악 스튜디오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888번길 36(삼영빌딩)  
201호

연락처 032-468-5432

#연습실 #합주실 #음악연습실 #남동구 #음악스튜디오





# 10 | 시민들과 함께 즐기는 연극 광대무변







광대무변(廣大無邊)! 너르고 커서 끝이 없다는 뜻이다.

가게 이름치고는 참 특이하다. 가게 이름을 한자 사자성어로 짓는 일도 드문데, 그 뜻이 너무 거창하여 감당하기가 쉽지 않다. 처음 이 이름을 듣는 순간 주인이 허세가 대단한 사람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을 품었다.

그래서 주인을 만나자마자 대뜸 이름의 연유부터 물었다. 주인 예홍주 씨(40)는 수줍어하며 머리를 긁적였다. “뭘, 연극 하는 곳이다 보나...”

비로소 깨달았다. 이곳은 연극을 하는 곳이다. 그렇다고 공연장은 아니다. 연습장도 아니다. 연극 기획사도 아니다. 이곳은 전문 연극인들이 연극을 하는 데가 아니다, 연극과 아무 관련이 없던 일반 시민들이 연극을 하는 곳이다. 그들이 연극을 맛보고, 배우고, 알고, 연습하고, 나누는 공간이다. 연극의 ‘연’ 자도 모르는 사람부터, 어릴 때부터 연극 배우를 꿈꾸었지만 한 번도 감히 나서보지 못한 사람, 학창 시절에 무대에 섰던 아련한 기억을 간직한 사람, 연극을 향한 숨은 끼를 처음으로 찾아 스스로 놀라는 사람까지 모두 모이는 공간이다.

광대무변의 ‘광대’는 ‘너르고 크다’라는 뜻이면서도 동시에 사람들 앞에서 연희하는 ‘광대’를 지칭하는 말이라. 그러므로 여기에는 중의적인 의미가 숨어있다. 광대 짓, 즉 연극은 넓고 커서 끝이 없다는 뜻인

것이다. 다시 말하면 연극은 소수의 재능 있는 사람들의 전유물도 아니고 전문 연극인들만의 닫힌 세계도 아니다. 그것은 수많은 대중과 함께 호흡하고 보통 시민들과 공유하는 것이다. 그래서 연극의 세계는 끝없이 열려있어서 광대무변하다는 뜻이다.

모래내시장역 2번 출구에서 가까운 광대무변은 남동농협 신만수 지점 건물 3층에 자리 잡고 있었다.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공간이 매우 넓어서 놀랐다. 출입구의 홀과 사무실이 있었고, 긴 복도로 이어진 쪽으로 들어서니 거기에는 어마어마한 공간들이 자리하고 있었다. 십 수 명이 토의할 수 있는 회의실, 마음껏 뛰어다니며 연극이나 무용을 할 수 있는 연습실, 혼자 분장, 갱의, 구상 등을 할 수 있는 다섯 개의 개인실, 그밖에도 연극 포스터와 사진들이 전시된 긴 복도와 라커룸, 화장실 등, 동네 사람들 대상으로 하는 조그만 동아리방쯤으로 생각하다간 큰코다친다.



“이렇게 큰 공간을 왜 마련했나요?”

기자의 질문에 광대무변의 주인은 허허로운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연극이 좋아서요. 연극을 하고 싶어서요.”

그는 4년 전에 이 공간을 마련했다. 처음에는 청소년들의 연극 지도를 비롯해 문화교육사업을 시작하려 했는데 인천시의 ‘천 개의 오아시스’ 공모에 선정된 것이 계기가 되어 지역사회로 눈을 돌리게 되었다. 광대무변이 지역 주민들과 연극을 즐기면서 지역사회 연극의 소중한 보금자리가 될 수 있겠다고 생각하자 의욕이 넘쳤다. 시민들을 모집하여 아마추어 극단 동아리를 만들었다. 모인 사람들은 여염집 주부, 자

영업 하는 사람, 20대 대학생 등 직업이 다양했고, 남성들의 참여폭도 넓어서 여성 대 남성의 비율이 6:4 정도였다. 알음알음으로써 모인 사람이 가장 많을 때는 30명이나 되었다.

예홍주 대표도 깜짝 놀랐다고 했다. 가볍게 시민들 속에서 연극을 알리고 함께 즐기자는 취지에서 시작하였는데 사람들이 이처럼 많이 모여들 줄은 몰랐다는 것이다. 그는 “누구나 가슴속에 표현하고 싶은 욕구가 있고, 제가 그 화산을 건드린 거지요.”하고 웃었다.

처음에는 서로 만나 연극을 공부하고 함께 연습하는 것만 해도 재미 있었는데, 차츰 욕심을 내다보니 인천 시민연극제에 극단 <무변>이라는 이름으로 출전까지 했다. 그래서 2016년에 <토끼와 포수>라는 연극으로 우수연기상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2017년에는 헨릭 입센의 <유령>으로 주니어 부문 대상을, 2018년에는 <무감정 커뮤니티>라는 창작극으로 우수상을 거머쥐기도 했다.





물론 운영에 어려운 점도 많았다고 했다. 특히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연극에 대한 회의적 눈초리였다. 연극 동아리 활동에 열심히 참여하는 아내를 쓸데없는 짓 한다고 겁박한 남편, 꿈을 갖고 연극에 도전한 자식을 연극을 해서 밥 벌어 먹고살겠냐고 하면서 그만두게 한 아버지를 많이 보아왔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점점 활성화되어가는 동아리 모임에 보람을 느껴 시민들과 연극 활동을 추진하면서 생기는 어려움을 이겨낸다고 했다.

인천 연극은 1913년 협률사(애관극장의 전신)에서 극단 혁신단이 <육혈포 강도>를 공연한 이래로, 1920년대 극작가 함세덕, 연기자 정암 등이 활동하며 이른 시기에 활성화되었다. 그러나 이후 쇠퇴 일로에 접어들어 옛 연극 도시의 명망을 잃었다. 인천이 국제도시에 걸맞은 문화적 토대를 갖추려면 연극도 활기를 되찾아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인천연극제(옛 항구연극제)를 비롯한 좋은 연극제가 활성화되어야 한

다. 특히 시민들이 참여하는 시민연극제는 연극 문화의 튼튼한 바탕을 이룬다는 점에서 매우 필요하다고 예홍주 대표는 강조하고 있다. 아마 추어 연극제가 자주 열려서 많은 시민이 자발적으로 연극에 참여하고 연극을 사랑하게 된다면 인천 연극의 장래는 밝다고 그는 말했다. 연극이 발전하려면 일반 관객 확보가 필수인데 그 관객은 이러한 시민 애호가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것이 답이라는 것이다.

코로나 시대의 연극에 대해서도 고민 중이라고 했다. 요즘 그는 언택트(영상) 공연 기획에 폭 빠져 있다. “사람들과 소통하지 않는 연극은 죽은 연극입니다. 요즘 같은 비정상적 상황에서도 비대면으로 연극을 공유할 방법을 연구 중입니다.”

“누구나 찾아와도 되지요?” 하는 기자의 질문에 예 대표는 활짝 웃으며 대답했다. 연극은 여러 사람의 앙상블이다. 화술과 움직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 사이의 소통이라고 그는 강조했다.

“그러니 사람 만나자고 하는 짓인데, 오시는 분 대환영이지요.”



#### 광대무변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247번길 97 3층

연락처 010-3925-8253

홈페이지 <http://www.uactors.com/new/main/main.php>

#연습실 #남동구 #문화센터 #시민동아리



# 11 | 일주일에 한 번 마법의 문이 열리는 곳 연수구 '내일 또 와'



소설 해리포터에는 마법사가 학교에 가기 위해서 거쳐 가는 특별한 통로가 등장한다. 머글(일반인)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기차역 승강장 9번과 10번 사이, 그저 평범한 벽으로만 보이는 그곳을 깊은 심호흡과 함께 단숨에 통과하면 놀랍게도 마법 학교 호그와트로 가는 급행열차의 승강장이 펼쳐진다. 우리가 늘상 보고 지나치는 평범한 곳에 말 그대로 마법 같은 세계가 숨어 있다는 상상력은 언제 다시 보아도 신나고 짜릿하다.

연수구 새말로 51. 1동 지상 1층에 위치한 호프집 ‘내일 또 와’를 찾아가셨을 때 마치 호그와트로 향하는 급행열차의 정거장에 도착한 듯한 느낌을 받았다. 모든 것이 그저 평범하고 평온해 보이는 호프집이지만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일주일에 한 번 다른 세계로 갈 수 있는 신비한 통로가 생겨난다니, 나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성큼 문을 열고 들어갔다.

“동네방네 아지트 사업이 동네에 있는 평범한 공간을 문화공유 공간으로 활용하는 취지를 갖고 있잖아요. 저희 같은 호프집도 영업을 하지 않는 시간에는 문화공간으로 쓰일 수 있겠다는 생각에 지원하게 됐어요.”

‘내일 또 와’를 책임지고 있는 이한솔 대표는 어린 시절 근방에 위치한 수영장을 자주 오갔던 터라 유독 연수동에 애정이 깊다고 한다. 그래서 올해 3월 이곳에 호프집을 냈다. 정확히는 어머니가 호프집 운영을 담당하고, 호프집을 영업하지 않는 낮 시간대에는 이한솔 대표가 여러 가지 문화 사업을 구상했는데 그중의 하나가 보드게임과 소설 쓰기를 접목한 프로그램인 ‘정신을 차려보니 NPC가 되었다’이다.



“여러 사람과 어울려야만 제 맛이 나는 보드게임을 이곳에서 함께 해 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보드게임만 하면 일회성으로 끝날 수 있으니까 거기에 소설 쓰기를 접목해서 게임을 즐긴 후 자신이 가보고 싶은 판타지 세계를 직접 써 보는 시간을 가졌지요.”

보드게임이야 누구에게도 진입장벽이 낮겠지만 소설 쓰기는 글썄...상대에 따라 어렵고 낯설게 느껴질 수 있기에 이한솔 대표는 글을 쉽게 쓸 수 있는 가이드 라인을 준비했다. 말하자면 소설 키트. 내용을 살펴보니 이런 질문들이 담겨있었다.

“처음 가게에 들어왔을 때 본 것, 느낀 것, 기분 등 자신의 감정을 서술하세요. (예시: 가게 문이 삐걱거리며 열리고 미리 들어와 있던 사람의 눈길에 쏠릴 때 잘 찾아 온 것이 맞는지 긴가민가한 기분이 들었다.







늘 오던 동네 호프집이었는데 분위기가 달라진 것 같기도 했다. 비가 오고 있기 때문에 가게 문을 닫고 에어컨을 틀어놔는데, 에어컨 바람이 평소보다 골장 나에게 닿는 것 같은 기분도 들었다.)”

글쓰기에 대한 부담감을 잠시 내려놓은 뒤 소설 키트를 마치 보드게임 하듯 한 단계 한 단계씩 풀어나가면 된다. 그러다보면 어느새 자신만의 스토리를 가질 수 있게 되고 그 이야기들이 쌓여 제법 그럴듯한 한 편의 소설을 완성할 수 있게 된다. 보드게임을 즐기듯 소설 쓰기를 즐길 수 있는 요즘말로 ‘신박한 기획’이 아닐 수 없다. 물론 소설 쓰기를 원하지 않는 신청자 중에는 보드게임만 즐길 수도 있다고 한다.

이렇게 재미있는 기획에 참여자가 많으면 좋을 텐데.

“예상치도 않았던 코로나19 때문에 진행이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홍보도 조금 부족했구요. 하지만 꾸준히 찾아주시는 분들은 있어요.”

이한솔 대표는 내심 이웃사촌인 연수구 주민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했지만 그보다는 보드게임과 웹소설에 친숙한 2,30대 젊은 신청자들의 참여가 있었다고 한다. 그중에는 멀리 서구에서 방문한 분이 가장 인상적이었다고 말했다.

“인천문화재단의 ‘동네방네 아지트’ 사업을 통해서 동네 사랑방의 중요성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하게 됐어요. 더불어 이런 문화 사업이 조금 더 성장하기 위해서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사업장의 프로그램이 교류하고 연대해서 지역민의 문화 중심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라는 바람도 전했다.



올해는 코로나 19라는 예기치 않은 변수를 만나 많은 것들이 변했다. 물론 그로인해 계획이 어긋나는 어려움도 겪었지만 이런 변화를 경험하면서 우리는 분명 새로운 방향을 향해 한 발자국 나아갔을 것이다. 희망은 어둠속에서 비로소 빛이 나는 법이니까.



#### 내일 또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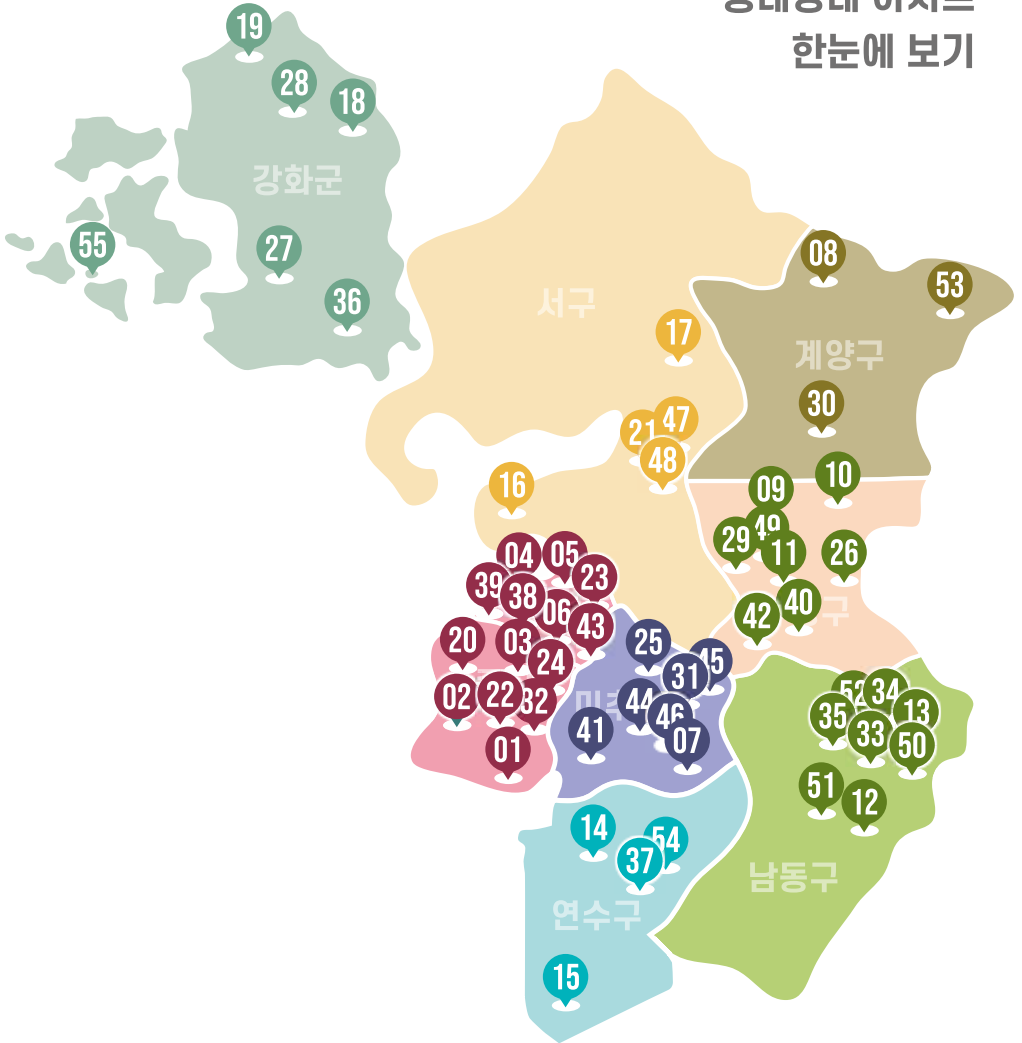
주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새말로 51, 1동 지상1층(연수동)

연락처 0507-1345-3541

#연수구 #문화공간 #동네방네아지트



# 2017-20 동네방네 아지트 한눈에 보기



## 2017-20 동네방네 아지트 목록

No.	아지트명	주소
1	카페 까미노	인천광역시 중구 제물량로 166번길 14-1
2	임시공간	인천광역시 중구 신포로 27번길 29
3	서담재 갤러리	인천광역시 중구 송학로 25-15
4	이벨 시 다락방	인천광역시 동구 금곡로 5-1
5	허공산실(한미서점)	인천광역시 동구 금곡로 9
6	카페 제이	인천광역시 동구 송현동 67-151
7	플라워 인 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월로 40번길 14
8	문화공간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성동 25-27 뉴서울프라자
9	카페 하루(부평)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개동 150-5
10	부평공예마을	인천광역시 부평구 장제로 217 3층
11	인천평화LETS	인천광역시 부평구 경인로 1104번길 10 지하
12	플레이스 이너프	인천광역시 남동구 이월남로 312
13	향촌작은도서관	인천광역시 남동구 민수서로 55
14	세종문고	인천광역시 연수구 샅말로 8번길 13-2
15	송도 요가쿨라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3-29 서운프라자 5층
16	나래미 생태공방	인천광역시 서구 율도로 65번길 39-1
17	문화카페 섬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에메랄드로102번길 10 청라리치아노 306호
18	버드카페	인천광역시 강화군 신문길 44번길 5, 1층
19	카페 하루(강화)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사면 덕하로 93-19
20	버텨라인	인천광역시 중구 신포로 23번길 23
21	청소년인문학 도서관 느루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348-4번지 302호
22	다인아트갤러리	인천광역시 중구 중앙동 4가 1-3
23	작당	인천광역시 동구 안송로 4
24	반반	인천광역시 중구 신포로 15번길 68
25	생활문화예술 동아리연합 놀이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 343, 주안시민지하상가 27번 출구 아트애비뉴27
26	삼산해오름공부방	인천광역시 부평구 삼산동 129-14
27	책방, 국자와주걱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도면 강화남로 428번길 46-27

## 2017-20 동네방네 아지트 목록

No.	아지트명	주소
28	김유자 인문서당	인천광역시 강화군 송해면 장정양오길 227-4
29	리폼맘스	인천광역시 부평구 세월천로 67 명성빌딩 3층
30	돌맹이국도서관	인천광역시 계양구 작전시장로 23 지하1층
31	스페이스 더하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월로 15, 3층
32	Acting 연습실 'Y'-극단 열정-	인천광역시 중구 제물량로 160-1 3층
33	꿈다락도서관	인천광역시 남동구 북개서로 89번길 9
34	꿈나무도서관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서로 37번길 29
35	콩세알도서관	인천광역시 남동구 하촌로59번길 21 2층
36	온(ON)수리카페	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 온수길 17
37	(주)로보메가 메이커스페이스	인천광역시 연수구 함박외로 50번길 93 승영빌딩 701호
38	책방 모도	인천광역시 동구 화수로 47번길 14
39	산책 작은 도서관	인천광역시 동구 금곡로 50-1 지하 1층
40	빛짜루 화실	인천광역시 부평구 경인로 834번길 22, 2층
41	미추홀구도시농업지원센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승학길 104번길 40-3
42	현대문화공간 'SAM'	인천광역시 부평구 길주남로 68, 4층
43	커뮤니티주점 개코막걸리	인천광역시 동구 창영동 10-2
44	카메라사진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한나루로 472
45	에이블스튜디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월로17 BF01
46	모모하시니의 만물작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하로183번길 15, 1층 (주안동 809-5)
47	거북이밥(사인의 사회)	인천광역시 서구 길주로 136번길 21, 1층 103호(석남동)
48	우리동네 사랑방 서구민중의집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로 78, 2층
49	복합문화공간 지금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94 지하
50	동네 책방 시방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로45번길 15, 11호(만수동)
51	꿈꾸는 음악 스튜디오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888번길 36(삼영빌딩) 201호
52	광대무변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247번길 97 3층
53	MAKER'S놀이터 해봄	인천광역시 계양구 굴현동 양지로 132 3층
54	내일 또와	인천광역시 연수구 새말로 51, 1동 지상1층(연수동)
55	공간섬알	인천광역시 강화군 서도면 아차도길 100



## 동네방네 아지트 탐방 4

- 인천의 문화 아지트를 찾아 떠나는 여행

---

발행	2020년 12월
발행처	인천문화재단(032-455-7100, <a href="http://www.ifac.or.kr">www.ifac.or.kr</a> )
기획	윤지원(인천문화재단 시민문화부)
취재글사진	김진영, 안해숙, 한승희 김진영(거북이밥, 꿈꾸는 음악 스튜디오, 동네 책방 시방, 내일 또와) 안해숙(우리동네 사랑방 서구민중의집, 복합문화공간 지금, Maker's놀이터 해불) 한승희(에이블스튜디오, 모모하시니의 만물작업, 광대무변, 공간섬알)

편집디자인 다인아트

비매품









